공유하는 삶과 죽음, 전통이 창출하는 현대

"세월이 좋다" (객석 2월호)　이미원

주목할 만한 실험극 페스티벌 "관점 Pefspective 94"가 연극실험실 혜화동 1번지 소극장에서 1월 7일부터 3월 7일가지 여섯 연출가의 작품을 올린다. 첫 작품으로 공연된 "세월이 좋다"는 우선 최초의 한·일 합작 공연으로 일본과 미국 등지에서 성공적인 해외공연을 이미 가졌었기에, 공연 전부터 연극계의 충분한 관심을 모았다. 일본극작가 기시다 리오(岸田理生)가 대본을 쓰고, 李潤澤이 초연으로 연출했으며, 한·일 배우와 스태프뿐만 아니라 두 개의 언어마저 뒤섞여서 공연된 이 연극은 실로 온통 충돌의 장이었으면서도 동시에 뛰어난 조화를 창출하여, 한마디로 기대에 부응했던 공연이었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남자를 여의고 혼자 사는 세 여자의 기억을 통해서 다양한 삶과 죽음을 음미한다. 서술적인 줄거리는 기억을 통해서 다양한 삶과 죽음을 음미한다. 서술적인 줄거리는 없으며 중요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한 많은 일본어 대사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길도 없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음조의 언어 (단순한 외국어이어서가 아니라. 李潤澤이 일본어에 독자적인 액센트를 덧붙였다고 한다)역시 청각적 이미지의 일부요, 시적 상징으로 작용하기에 굳이 원어를 이해할 필요도 없다.

무대에는 삼각구도로 각 모퉁이에 세 여인이 자리잡고 있으며, 죽은 망자들은 반투명의 망사막 뒤에 위치한다. 중요한 만남의 행위들은 무대의 중앙공간에서 일어난다. 무대는 세 여인들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대사들을 시작으로, 각잔 죽은 남자들을 회상하고 기억한다. 과거에 매달려 사는 여자, 과거를 잊고 미래를 잡고 싶은 여자, 그리고 오로지 헌재에만 사는 여자는, 각각 우리의 전 삶의 방식을 대변하기도 한다. 기억은 만남으로 이어져서 산 여자들은 죽은 남자들과 함께 죽음의 세계를 순례하고, 마침내 삶과 죽음은 격렬히 부딪쳐서 엑스터시에 이른다.

세 여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연극은 끝나고 관객은 삶과 죽음의 통례의례를 거친 제의를 바로 목격했음을 느낀다. 조화된 이미지들로 인하여 절제된 느낌이지만, 아르또의 잔혹극과는 또 다른 제의적 아름다움인 것이다.

공연에서 우선 주목되었던 것은 않은 이원적이고 대조적인 이미지들이다. 삶과 죽음, 백색과 검정, 움직임과 정지, 따뜻함과 차가움, 천국과 지옥 등등의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전체적인 상징으로 다가왔다. 뿐만 아니라 시적인 언어들이 실험적 연극에서 간과되기 쉬웠던 언어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배우들의 절제된 연기와 에너지의 함축도, 이 공연을 더욱 시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감동적이었던 것은 전통의 현대적 재구성이다. 우리의 궁중음악정가에서부터 아리랑이나, 익숙한 유행가, 그리고 일본동요까지를 포함하여 재구성한 음악에는, 전통악기는 물론 최신 전자음악가지 동원되면서 현대적 새로움을 창출하고있다. 움직임 역시 살풀이 가락에서 현대무대가지를 해체하여 재구성하며, 구석 구석 잊었던 옛 놀이마저 오늘에 되살리고 있다.

이렇듯이 한·일 양국의 전통을 해체·재구성한 (세월이 좋다)는 분명 우리 전통을 느끼게 하는 가장 한국적인 연극이요, 또한 가장극동 아시아적인 연극이다. 그러나 동시에 굳이 포스트모더니즘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서구식연극의 중심을 아시아적 전통으로 해체하여, 가장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연극에 이르고 있음을 성공적으로 보여준 공연이었다.